『동의보감』에서 桃仁 紅花를 사용한 처방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이용태* · 강경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s of Semen Persicae and Flos Carthami in the Herbal Perscriptions Appeared in the book of 『Donguibogam』 according to Hyungsang Medicine

Yong Tae Lee*, Kyung Hwa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examination of the usage of semen persicae and flos carthami from the view of Hyungsang Medicine. Semen persicae is used to vitalize the blood flow and eliminate the blood stagnation of the whole body in 『Donguibogam』, and therefore it is used for the blood flow of the heptal meridian and sometimes the intestinal meridian. Flos carthami is applied to vitalize the blood flow, remove obstructions in meridians, eliminate the blood stagnations, and stop the pain in 『Donguibogam』, therefore used in such symptoms of blood flow of the heptal meridian as amenorrhea, spasm of muscles, and coldness of the genitals. Also is applied in those cases of exhaustion, perspiration, and in digestive remedies which belong to the symptoms of cardiac blood flow. And it is used for dryness of the skin in which case the blood should be developed and malaria for the elimination of the blood stagnation and production of new blood. The combination of semen persicae and flos carthami is applied to eliminate the blood stagnation and stimulate menstrual discharge in uterus, as well as in the cases of lumbago and stomachache due to blood stagnation, blood stasis, mass in the abdomen, and abdominal distention. This combination is also used for the eyes, ears, numbness, and paralysis of hands and feet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flow of the meridian smooth, and for diabetes, dryness of the skin, malaria, anal itching and pain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the mass and renewing the tissues. The combination is diversly used in the book of 『Special lectures on clinical cases』 for the aftereffects of traffic accident, constipation, diabetes, dryness of the skin, paralysis of hands and feet, numbness of finger of hand and foot, and especially used frequently with the prescription of Yijintang and Samultang combined in the cases of numbness. The prescription is used in Hyungsang medicine when the uterus, the external appearance(axis), hands and feet, heart, and the stomach is not good for the vitalization of the flow of the 12 meridians. It was though difficult to find extinguishin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erbs in the clinical cases applied in the book of 『Special lectures on clinical cases』.

Key words : semen persicae, flos carthami, Donguibogam, Hyungsang Medicine, blood stagnation(어혈)

서 론

현대는 시대적 상황이 활동성의 부족과 영양의 과잉섭취, 인스턴트 음식의 범람, 교통사고 등의 타박상, 수술요법, 정신적 스트레스의 과다 등으로 榮衛氣의 운행에 장애가 생겨 瘀血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瘀血 치료 대표약인 도인과 홍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인은 장미과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복사나무와 산복사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으로 性은 平하고 味는 苦甘하다. 귀경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 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6/10/02 · 수정 : 2006/10/23 · 채택 : 2006/11/13

은 心 肝 大腸이다. 味가 苦 甘하고 性은 平하며 質潤하여 肝經血分에 들어가 破血行血 活血祛瘀하며[1], 血分의 血에 작용한다[2].

홍화는 국화과에 속한 일년생 초목인 잇꽃의 꽃을 건조한 것으로 性은 溫하고 味는 辛하다. 귀경은 心 肝經이다. 약의 性味가 辛散溫通하여 心과 肝經의 血分에 들어가 活血通經 祛瘀止痛시키는 작용이 있어 각종 瘀血阻滯로 인한 病證에 적용된다[3]. 또 血分의 氣에 작용한다[4].

한편 도인과 홍화를 배합하는 경우는 對藥[5]에서 도인은 局部의 有形瘀血이나 어혈이 下腹部에 있을 때 사용하고 홍화는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여 전신에 펴진 無形의 어혈을 치료한다고 했다. 비교하면 도인은 破瘀血이 强하고 홍화는 行血力이 우수해서 배합하면 상호 촉진해서 活血通經 祛瘀生新 消腫止痛力이 증가된다[6]고 하였다.

瘀血은 혈액이 엉겨 정체된 것을 가리킨다. 맥 밖으로 벗어난 혈이 체내에 쌓이거나 혈액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이 경맥 및 장부 내에 정체되는 것을 포괄하여 모두 어혈이라 한다.

어혈은 『내경』에는 凝血[7] · 留血[8] · 著血[9] · 惡血[10] · 衄血[11]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장의 『금궤요략』에서는 瘀血[12]. 血痺[13]. 乾[14]. 등의 명칭이 있고 『상한론』에는 蓄血[15] 등의 명칭이 있으며, 청대의 당은 『혈증론 · 권5』에서 경맥을 벗어난 혈은 비록 맑은 血이나 鮮血이라 하더라도 역시 瘀血이라고 제시하였고 疼痛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어혈이 응체되었기 때문이라[16]고 하였다.

한편 『동의보감』에서는 어혈이 쌓인 것을 蓄血證[17] 이라고 했는데, 축혈증은 상중하로 구분하여 각각의 증상을 상술하였다. 또한 『동의보감』의 어혈로 인한 병증은 胞, 肺肝, 腸胃 등이 이상을 일으키거나 外傷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인과 홍화는 각각 귀경이 心과 肝이므로 형상의학적으로 전면이 발달한 자, 눈과 입이 발달한 자, 혈과, 담체, 주류 등에 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瘀血 치료 대표약인 도인과 홍화가 사용된 『동의보감』 처방과 형상의학적 관점에서의 치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도인과 홍화

도인은 장미과에 속한 낙엽 소교목인 복사나무와 산복사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으로 性은 平하고 味는 苦甘하다. 귀경은 心 肝 大腸이다. 味가 苦甘하고 性은 平하며 質潤하여 肝經血分에 들어가 破血行血 活血祛瘀하며 홍화와 동용하여 치료효과를 증가시키고, 治經閉, 經痛, 癥瘕痞塊 跌撲損傷에도 사용하며 潤腸通便하여 또한 腸癰이나 肺癰에 적용하면 活血消癰의 효과도 있다[18]. 또 도인은 변비를 치료하지만 氣,血로 나누어 보면 밤에 변을 보기 힘든 陰血로 인한 것에 쓴다[19]

홍화는 국화과에 속한 일년생 초목인 잇꽃의 꽃을 건조한 것으로 性은 溫하고 味는 辛하다. 귀경은 心 肝經이다. 약의 性味가 辛散溫通하여 心과 肝經의 血分에 들어가 活血通經 祛瘀止痛시키는 작용이 있어 각종 瘀血阻滯로 인한 병증에 적용하며, 內科 婦人科 外科 傷科의 활용방 중에 상용하는 약물이 된다. 또 治經閉 經痛 惡露不行 癥瘕痞塊 跌撲損傷에 많이 사용되며, 홍화는 소량을 사용하면 活血通經하고, 대량을 사용하면 破血逐瘀하고 催生下胎하여 活血通經의 효력이 비교적 강하므로 瘀滯가 없는 자나 임부는 복용을 忌한다[20].

本經疏證[21]에서 腹內 惡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쥐어짜듯 아픈 증상(絞痛)은 腹中 血氣로 刺痛하는 증상과 같다. 다만 어혈로 생긴 통증은 부위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으며 絞나 刺痛은 氣에서 생긴다[22]고도 하였다.

또 홍화는 처음에는 노랗다가 나중에는 적색으로 변하므로 火와 土德이 협조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혈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으며 상부와 하부까지 두루 치료한다. 그리고 이것은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여 발산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氣를 치료한다. 이렇게 홍화가 어혈을 소통하는 점은 다른 약물과 다르다[23]고 하였다.

한편 도인과 홍화를 배합하는 경우는 對藥[24]에서 도인은 破血行瘀, 潤燥滑腸 효능을 가지며 少用하면 養血하고 多用하면 破血하여 局部의 有形瘀血이나 어혈이 下腹部에 있을 때 사용하고 홍화는 活血通經, 祛瘀止痛하는데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여 活瘀血, 生新血하므로 전신에 펴진 無形의 어혈을 치료한다고 했다. 비교하면 도인은 破瘀血이 강하고 홍화는 行血力이 우수해서 배합하면 상호 촉진해서 活血通經 祛瘀生新 消腫止痛力이 증가된다[25]고 했으며 배합본초학[26]에서는 두 약은 다 같이 活血通經

1)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용림사, 2004, P. 465
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421
3)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용림사, 2004, P. 466
4) 김창민외 편찬, 증약대사전, 서울, 정담, P. 4934
5) 묘명삼 왕지민, 대약의 화학 약리와 임상, 북경, 군사의학과학출판사, 2001,
6) 묘명삼 왕지민, 대약의 화학 약리와 임상, 북경, 군사의학과학출판사, 2001, P. 353
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19 '寒獨留, 則血凝泣, 凝則脈不通, 其脈盛大以濇'
8)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17 '血氣未幷, 五藏安定, 孫絡水溢, 則經有留血'
9)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22 '陷下者, 脈血結于中, 中有著血'
10)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53 '若有所墮墜, 惡血在內而不去'
11)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39 '故色見青如草菽[1]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 者死, 赤如衄血者死'
12) 김정범, 금궤요략변석(하), 서울, 한의문화사, 2002, p451
13) 김정범, 금궤요략변석(상), 서울, 한의문화사, 2002, p173
14) 김정범, 금궤요략변석(상), 서울, 한의문화사, 2002, p173
15)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1984, p. 89
16) 상지대 한의과대학 4기, 국역 혈증론, 서울, 일중사, 1997, p. 195
1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4
18)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용림사, 2004, p. 465
1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421
20)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용림사, 2004, p. 466
21) 鄒澍, 본경소증, 서울, 대서의학사, 2001
22) 鄒澍, 본경소증, 서울, 대서의학사, 2001, p 303
23) 鄒澍, 본경소증, 서울, 대서의학사, 2001, p 304
24) 묘명삼 왕지민, 대약의 화학 약리와 임상, 북경, 군사의학과학출판사, 2001
25) 묘명삼 왕지민, 대약의 화학 약리와 임상, 북경, 군사의학과학출판사, 2001, P. 353
26) 강병수외, 임상배합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4

과 瘀血을 제거하여 新血을 生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나 홍화는 溫通작용으로 인하여 止痛의 효력은 도인보다 강하고 또한 도인은 苦泄작용에 의해 어혈을 제거하는 효력이 홍화보다 우수하다. 그러므로 두 약을 배합하면 活血祛瘀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므로 婦女子의 月經閉止, 어혈로 인한 腹痛 및 모든 어혈로 발생하는 腫痛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27]고 하였다.

따라서 도인은 血分의 血에 작용하고[28] 홍화는 血分의 氣에 작용[29]하는데 이를 배합하면 局部의 有形瘀血, 下腹部의 어혈, 전신에 펴진 無形의 어혈에 골고루 작용하여 活血通經, 祛瘀生新, 消腫止痛한다.

여기서 도인과 목단피를 배합하면 두 약이 같이 活血하여 어혈을 제거하고 또한 消腫하여 통증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고, 도인과 대황을 배합하면 대황의 血分 熱을 淸熱하고 瘀血을 제거하는 작용과 도인의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배합해서 타박 염좌로 인한 손상이나 靑腫으로 인한 동통 치료에 사용하고, 도인과 행인을 배합하면 두 약은 같이 潤燥活腸의 작용이 있으나 도인은 活血작용이 뛰어나고 행인은 氣의 上逆을 강하게하는 작용이 우수해서 배합하면 흉협통 요통 복통이나 진액이 부족하고 血虛를 겸한 변비를 치료할 수 있으며 또한 해수 치료에도 사용하며, 도인과 익모초는 같이 活血과 祛瘀작용이 있어서 어혈로 발생하는 복통 産後惡血을 멈추게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니 이들의 배합과 비교해 볼 수 있다[30].

2. 瘀血

1) 어혈의 정의

어혈은 『내경』에는 어혈이란 명칭은 없으나, 凝血·留血·著血·惡血·衄血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컨대 『소문·조경론』에서 "寒邪가 홀로 체내에 정체되면 혈액이 응결되고, 혈액이 응결되면 경맥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여 그 맥이 성대해지고 澁해진다"[31] 고 하였고, 『영추·금복』에서는 "맥이 虛하여 下陷하는 경우는 맥 중의 달라붙은 것이다"[32] 하고 하였고, 『소문·조경론』에서는 "孫絡의 혈이 외부로 넘치는 것은 어혈이 있음을 뜻한다"[33] 고 하였으며, 『영추·적풍』에서는 "혹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어혈이 체내에서 머물러 제거되지 않은 경우이다"[34] 라고 하였다.

장중경의 『금궤요략』에서는 瘀血. 血痺. 乾血등의 명칭이 있고. 『상한론』에는 蓄血[35]등의 명칭이 있다. 『금궤요략·경계토뉵하혈흉만어혈병맥증병치편』 에서는 "환자의 흉부가 창만하고 입술에 윤기가 없으며 혀가 푸르고 갈증이 있으나 물을 삼키려 하지 않으며. 오한이나 발한 증상은 없고 맥상은 약간 크고 느리며 복부가 창만하지 않으나 환자가 복부창만을 자각하는 것은 瘀血이 있는 것이다"[36]라고 하였고, 『금궤요략·혈비허로병맥증병치편』에서는 "血痺의.....외증은 신체가 마비되어 무감각한 것이다. 이는 음식으로 인한 손상등과 과로로 인한 손상으로 경락과 영위기혈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데, 내부에서 乾血이 생겨 피부가 몹시 거칠어지고 두 눈동자가 검푸른 색을 띠는 증상이 발생한다"[37] 고 하였으며, 『상한론· 변태양병맥증병치』에서는 "太陽病이 해소되지 않아 熱이 울결 되면 환자가 미친 듯이 행동하고.....외증이 해소되었으나 소복부가 창만할 경우는 마땅히 [도인승기탕]으로 攻下시켜야 한다"[38] 고 하였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太陽蓄血證이다.

청대의 당용천은 『혈증론·권5』에서 어혈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은 血塊는 瘀이고 맑은 혈은 瘀가 아니며, 흑색을 띠는 것은 瘀이고 鮮血은 瘀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맥을 벗어난 혈은 비록 맑은 혈이나 鮮血이라 하더라도 역시 어혈이다"[39]라고 제시함으로써, 항상 瘀血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당용천은 跌打折傷에 대해 "동통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어혈이 응체되었기 때문이다"[40]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어혈은 혈액이 엉겨 정체된 것을 가리킨다. 맥 밖으로 벗어난 혈이 체내에 쌓이거나 혈액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이 경맥 및 장부 내에 정체되는 것을 포괄하여 모두 어혈이라 한다. 어혈은 질병과정에서 형성된 병리적 산물이자 질병의 발병요인으로서 凝血. 著血. 惡血. 衄血. 血痺. 乾血. 蓄血 등을 포함한다.

2) 어혈의 형성

(1) 氣虛 氣滯 血寒 血熱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혈액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해 응체되는 경우.

(2) 內外傷이나 기타 원인이로 인해 혈이 경맥을 벗어나 체내에 쌓여 어혈을 형성하는 경우.

氣爲血配[41]로서 기가 운행되면 혈도 운행되고, 기가 허해서 정체되면 혈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아 어혈이 형성된다. 기의 통로가 잘 통하지 않으면 영기와 위기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므로 혈액운행이 가로막혀 어혈이 형성된다. 氣滯는 칠정의 울결이 주원인데 기타 원인으로도 나타난다. 血寒 血熱 역시 혈액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다. 『소문. 거통론』 에서는 "寒則氣收 "라 하였고 , 또한 "寒氣가 소장과 膜原 사이의 血絡에 침입하면 혈액이 응체되어 큰 경맥으로 주입되지 못하고, 기혈이 머물러 운행하지 못하므로 오래 되면 積聚가 형성된다"[42]

27) 강병수외, 임상배합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4, p417
2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421
29) 김창민외 편찬, 중약대사전, 서울, 정담, P. 4934
30) 강병수외, 임상배합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4, p417
31)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19 '寒獨留, 則血凝泣, 凝則脈不通, 其脈盛大以澁'
32)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22 '陷下者, 脈血結于中, 中有著血'
33)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17 '血氣未并, 五藏安定, 孫絡水溢, 則經有留血'
34)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53 '若有所墮墜, 惡血在內而不去'
35)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1984, p. 89
36) 김정범, 금궤요략변석(하), 서울, 한의문화사, 2002, p451 '病人胸滿脣痿舌靑 口燥 但欲漱水不欲嚥 無寒熱 脈微大來遲 腹不滿 其人言我滿爲有瘀血'
37) 김정범, 금궤요략변석(상), 서울, 한의문화사, 2002, p173 '五勞虛極羸瘦 腹滿不能飮食 食傷 憂傷 飮傷 房室傷 飢傷 勞傷 經絡營衛氣傷 內有乾血 肌膚甲錯 兩目黯黑 緩中補虛 大黃䗪蟲丸主之.'
38)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1984, p. 89
39) 상지대 한의과대학 4기, 국역 혈증론, 서울, 일중사, 1997, p. 195
40) 상지대 한의과대학 4기, 국역 혈증론, 서울, 일중사, 1997, p. 198
4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211
42)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46

고 하였다. 그리고 『상한론. 태양병맥증병치』 에서는 "太陽病이 해소되지 않아 열이 방광에서 울결되면 환자가 미친듯이 행동하고.....외증이 해소되었으나 小腹部가 창만한 경우는 마땅히 [도인승기탕]으로 攻下시켜야 한다"[43]고 하여서 血寒 血熱로 인하여 어혈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맥 밖으로 벗어나 체내에 잔류하는 혈을 어혈이라 하는데, 청대의 당용천은 『혈증론.권5』에서 "口血. 鼻血. 便血.은 경맥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대개 경맥을 벗어난 血은 전신을 영양하는 血과 이미 관계가 끊어져 서로 합쳐지지 못한다. 이러한 혈액은 몸에서 좋은 피가 더해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혈액의 化生을 막는다. 그러므로 血症에서는 모두 어혈의 제거를 위주로 삼아야 한다"[44]고 하여서 여러 원인으로 경맥을 벗어난 혈이 어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 어혈의 특징[45]

어혈의 병증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1) 疼痛: 대부분 찌르는 듯이 아프고 통증부위가 고정적이며 만지는 것을 싫어하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진다.

(2) 腫塊: 특정부위의 기부가 붓고 청자색을 띠며, 체내에 어혈이 쌓여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으면 항상 癥積痞塊가 형성되고 부위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3) 出血: 처음에는 선홍색을 띠고 오래되면 검붉은 색을 띠며 덩어리를 수반한다.

(4) 發熱: 야간에 흔히 보이며 갈증이 있으나 물로 입가심할 뿐 마시지 않는다.

(5) 望診: 어혈이 오래되면 안색이 암흑색을 띠고 피부에 두터운 각질이 생기며 입술과 손톱이 청자색을 띠고 설질이 어두운 자색을 띠며, 점상출혈 반상출혈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

(6) 脈象: 細澁 沈弦 혹은 結代 등이 흔히 보인다.

4) 『동의보감』에서의 어혈

어혈이 쌓인 것을 蓄血證[46] 이라고 했는데, 蓄血證의 外症은 가래를 토하고 갈증이 있으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으며 정신이 없고 잘 잊어버리며 늘 따뜻한 물로 양치질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또한 상한열병에 몸이 누렇고 대변이 검으며 미친 것 같고 잘 잊어버리는 것은 蓄血證이라고 했다.

蓄血證은 上中下의 구별이 있는데, 衄血 嘔血 唾血 吐血은 상부의 축혈증으로 잘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고, 혈이 가슴에 뭉친 것은 중부의 축혈증으로 가슴이 그득하고 몸이 누렇게 되며 양치만 하고 물을 삼키려 하지 않는 증상이 있고, 하초에 혈이 쌓인 것은 하부의 축혈증으로 발광하고 변이 검으며 아랫배가 단단하고 아픈 증상이 있다[47]. 上下로 구별을 하면 上焦의 어혈은 소변이 어렵고 下焦의 어혈은 소변이 自利한다[48].

『동의보감』에서 어혈생성의 원인은 상한에 땀을 내야 할 때를 놓치면 열독이 장기로 들어가서 어혈이 생기고[49], 열이 혈실에 들어가도 생기며, 마땅이 땀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땀을 내면 어혈이 생기고[50], 넘어지거나 맞거나 높은데서 떨어져지거나 다른 것에 깔려도 어혈이 생기며[51], 쇠붙이에 상하여도 생긴다[52]. 또 醉飽行房해도 생긴다[53]고 보았다.

어혈로 인한 병증은 ① 胞와 관련된 증상-食痰, 부인의 대하, 소변의 自利,乳懸證, 小腹痛, 小腹硬滿, 어혈복통, 疝症, 陰卵偏墜(좌), 陰盛隔陽證, 傷寒發狂, 傷寒血證, 產後見鬼譫妄, 產後發熱, 產後心腹腰脇痛, 產後浮腫, 產後雜病 등. ② 肺와肝과 관련된 증상- 瘀血咳嗽, 肺脹症, 부인의 喘嗽, 痰瘡, 黃疸 등 ③ 腸胃와 관련된 증상- 膿血痢, 酒病의 胃口作痛, 胃脘癰, 瞼生風粟, ④ 外傷과 관련 된 증상- 被物撞打, 瘀血齒痛, 瘀血腰痛, 瘀血脇痛, 金瘡, 杖傷, ⑤ 기타의 증상 -血鬱, 血積, 血脹,

5) 지산 선생님의 어혈

瘀血에 대해서 "과일이 떨어지면 겉은 싱싱해 보여도 속은 멍이 든다. 흔들리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있고 또한 불순물이 있으면 제자리를 못잡게 되어 있으므로 어혈을 풀어서 불순물을 없애 제자리를 잡아줘야 한다."[54]라고 하면서 이의 치료에 관하여 "曲池에 침을 놓아서 손으로 끌어내려 준다. 曲池는 어혈을 치는 혈이다. 단 男左女右를 가려서 刺針하고, 당귀수산을 쓰기도 하는데 통증이 심하면 유향 몰약을 가한다. 여자는 사물탕가홍화 소목을 쓰고,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식물인간은 서각지황탕을 쓰며, 棍杖을 맞았을 때는 復元活血湯을 쓴다."[55]라고 하였다. 또한 머리 부분의 손상은 서각지황탕을 쓰고 몸부분의 손상은 당귀수산을 쓴다[56]고 하였다.

3. 『동의보감』에서 도인과 홍화의 사용 예

1) 도인의 사용례

도인은 혈문의 蓄血證중 중초나 하초의 축혈증에 도인승기탕 저당탕 생지황탕에서 사용되었고[57], 嘔血 吐血에서는 토혈하면서 가슴의 氣가 막힐 때 도인승기탕에서 사용하였고[58], 咳血 嗽血 唾血 咯血에서는 가미소요산 淸咳湯에서 사용하였고[59], 血病을 두루 치료하는 약에서는 坎离膏에서 사용되었으며[60], 胞門의 血結로 瘕가 되는 것에서는 지황통경환 千金桃仁煎에 사용되었고[61], 寒이 血室에 들어간 것에서는 계지도인탕에 사용되었고[62], 熱이 血室에 들어간 것에서는 柴胡破瘀湯에 사용되었으며[63], 소변문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에서는 하초에 어혈이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43)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1984, p. 89
44) 상지대 한의과대학 4기, 국역 혈증론, 서울, 일중사, 1997, p. 195
45)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2005, p387
4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4
4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4
4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911
4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9
5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19
5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62
5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57
5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14
54)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권, P. 247-248
55)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권, P. 376
56)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권, P. 79
5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4
5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9
5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3
6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6
6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4
6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14

있어 통하지 않을 때에 도인승기탕에서 사용하였고[64],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것에서는 潤腸湯 潤腸丸에 사용하였다[65], 乳門에서 乳癰의 치료법에서는 유옹이 아직 터지지 않았을 때에 청피 과루인 연교 천궁 도인 등을 사용하였고[66], 前陰門에서는 여러 가지 산병의 치료법에서는 산증이 허증을 끼고 있을 때 잘 통하게 하는 약으로 도인 산사 지실 등을 사용하였고[67], 水疝藥은 秘傳茱萸內消元에서 사용했고[68], 血疝藥에는 玉燭散[69], 氣疝藥에는 三茱丸[70], 狐疝藥에는 二香丸[71], 癪疝藥에는 橘核丸 橘核散에서 사용하였고[72], 음낭 한쪽이 처진 것에는 茱萸內消元[73], 음낭이 습하고 가려운 것에는 활혈구풍탕[74], 여러 가지 疝病을 두루 치료하는 법에는 십미창백산에서 사용하였고[75], 후음문의 癆痔에서는 神應散 逐瘀湯 가미향소산 진범창출탕 등에서 사용되었고[76], 腸風臟毒에서는 斷紅元에서 사용되었고[77], 항문이 가렵고 아픈 것에서는 진교백출환에 사용되었고[78], 치질의 치료법에서는 맵고 따뜻한 약으로 혈을 조화롭게해야 할 때 당귀 천궁 도인을 같이 사용하였다[79], 腰門에서 신허요통에서는 局方安腎元 加味安腎丸에서 사용하였고[80], 좌섬요통에서는 독활탕 舒筋散에서 사용되었고[81], 어혈요통에서는 천궁육계탕 地龍散에서 사용되었고[82], 한요통 습요통에서는 오적산에 가미해서 사용하였다[83]. 風門의 역절풍의 치료법에서는 단계가 통풍을 치료하는 법에 사용하였고[84], 傷寒血證에서는 抵當湯 도인승기탕에 사용하였고[85], 상한흉복통에는 도인승기탕에서 사용하였고[86], 열이 혈실로 들어간 것에서는 도인승기탕 소시호탕가미 목단피 도인해서 사용하였다[87]; 狐惑證에서는 황련서각탕 治惑桃仁湯 雄黃銳散에서 사용하였다[88], 火門에서 밤낮의 열은 다르다에서는 瀉血湯에서 사용하였고[89], 중초열에 도인승기탕을 사용하였고[90], 혈이 막혀 열이나는 것에도 사용하였고[91], 內傷門에서 呑酸吐酸에서는 四味茱連丸 黃連清化丸에 사용하였고[92], 嘔吐 얼격 反胃에는 대변을 통하게 해야한다에서는 四子調中湯에서 사용하였다[93], 해수문에서 血嗽에도 사용하였고[94], 숨이차고 기침하는 것을 두루 치료하는 약에서는 杏參散에서 사용하였고[95], 肺脹證에서는 담이 어혈을 끼고 기를 막으면 사물탕에 도인 가자 청피 죽력을 가미해서 사용하였다[96], 적취문에서 六鬱은 積聚 癥瘕 痃癖의 根本이다에서는 六鬱湯에 血鬱일 때 도인 목단피 韭汁을 사용하였고[97], 食鬱에서는 해울조위탕 生韭飮에서 사용하였고[98], 痞塊의 증상과 치료법에서는 당귀용회환에 도인을 가미해서 또 連蘿丸에서 사용하였고[99], 적취치법에서는 香稜丸에 사용하였고[100], 腸覃 석가 혈고의 증상과 치료법에서는 도인전 도노산에 사용하였고[101], 혈적에는 도인승기탕을 사용하였고[102], 적취 징가 현벽 비괴를 두루 치료하는 약에는 삼릉화적환에 사용하였고[103], 곽창의 치료법에는 계시례산에 사용하였고[104], 혈창의 치료법에는 도노환에 사용하였다[105], 痃癖門에서 痞疾은 낮에 발작하는 것과 밤에 발작하는 것으로 나누어 치료해야한다에서는 도인승기탕 마황황금탕에서 사용하였고[106], 해학에서는 五勞元 經效癖丹에서 사용하였고[107], 학질의 치료법에서는 밤에발작할 때는 도인 적작약을 가미해서 사용하였고[108], 학질을 멎게 하는 법에서는 人蔘截瘧飮에서 사용하였고[109], 邪祟와 尸疰를 치료하는 약에서는 桃奴元 殺鬼五邪丸에서 사용하였다[110], 옹저문에서 폐옹에서는 葦葉湯에 사용하였고[111], 장옹 복옹에서는 도인승기탕 대황목단탕 三仁湯에 사용하였고[112], 변옹에서는 雙解散에서 사용하였고[113], 부골저에서는 赤朮元에서 사용하였고[114], 대풍창에서는 補氣瀉榮湯에 사용하였고[115], 신장풍창에서는 活血驅風散에서 사용하였다[116], 諸傷門에서 칼에 베인 것에는 鷄鳴散에 사용하였고[117], 넘어지거나 맞거나 떨어지거나 갈려 상한 것에는 도인승기탕으로 사용하였고[118], 부인문에서 자식을 구하는 법에서는 제음단에 사용하였고[119], 사태를 내보내는 법에서는 奪命丸에 사용하였

6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15
6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45
6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428
6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684
6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1
6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2
6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3
7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4
7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4
7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7
7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28
7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35
7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37
7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52
7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54
7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64
7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67
8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06
8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08
8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09
8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10
8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026
8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03
8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04
8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12
8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14
8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73
9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76
9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90
9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29
9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15
9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40
9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60
9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66
9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2
9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4
9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6
10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8
10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94
10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99
10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02
10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31
10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32
10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83
10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86
10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94
10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97
11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23
11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63
11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68
11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71
11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73
11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99
11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43
11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56
11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62

고[120], 산후에 숨차고 기침하는 것에는 二母散에 사용하였고[121], 산후의 발열에는 시호파어탕에 사용하였고[122], 산후의 심복통과 요협통에서는 도인탕 桃桂當歸丸에서 사용하였고[123], 산후에 소변이 찔금찔끔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보는 것에는 蔘朮膏에 사용하였고[124], 산후의 설사와 이질에는 사물탕에 도인 목향 황련을 가미해서 사용하였고[125], 산후의 변비에는 滋腸五仁丸에 사용하였고[126], 산후 허로에는 십전대보탕에 가미해서 또 인삼별갑산에 사용하였고[127], 산달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는 사물탕에 가미해서 사용하였고[128], 산후에 전음이 붓고 아플 때는 도인을 곱게 갈아 비른다고 하였다[129], 또한 여러 가지 疳病에서는 下蟲丸에 사용하였다.[130]

表 1. 『동의보감』에서 도인이 사용된 예

도인이 사용된 병증	도인이 사용된 처방
중초축혈	도인승기탕
하초축혈	생지황탕
구혈토혈	도인승기탕
해혈 수혈 타혈 각혈	가미소요탕, 淸咳湯
통치 혈약약이	坎离膏
血結成瘕	地黃通經丸,千金桃仁煎
한입혈실	계지도인탕
열입혈실	시호파어탕
소변불통	도인승기탕,
대변불통	윤장탕,윤장환
유옹치법	靑皮瓜蔞橘葉連翹川芎桃仁皁角子甘草
諸疝治法	도인산사지실치자오수유현호색천련자
수산약	도인
혈산약	도인승기탕
기산약	三茱丸
호산약	二香丸
퇴산약	귤핵환,귤핵산
음낭편타	茱萸內消元
음낭습양	활혈구풍산
諸疝痛治	十味蒼白散
瘻痔	[illegible]應散,逐瘀湯,加味香蘇散, 秦艽蒼朮湯
腸風臟毒	진범창출탕,斷紅元
신허요통	국방안신원,구미안신환
좌섬요통	독활탕,서근산
어혈요통	천궁육계탕,地龍散
구사	제음단
산후심복요협통	도인탕,도계당귀환
下死胎	奪命丸
산후천수	이모산
산후발열	柴胡破瘀湯
산후임력유뇨	蔘朮膏
산후설리	사물탕가도인황련목향
산후대변변비	滋腸五仁丸
산후허로	인삼별갑산
諸疳	下蟲丸
攧撲墮落壓倒傷	도인승기탕
金刃傷	계명산
한요통	五積散가 吳茱萸杜冲桃仁
습요통	五積散가 吳茱萸桃仁
항문양통	秦艽白朮丸
치병치법	川芎當歸桃仁(和血生血)
역절풍치법	四物湯가黃栢牛膝甘草桃仁陳皮蒼朮
傷寒血證	도인승기탕,저당탕
상한흉복통	도인승기탕
狐惑證	黃連犀角湯,治惑桃仁湯 雄黃銳散
열유주야지분	瀉血湯
중초혈	도인승기탕
滯血發熱	시호황금천궁백지도인오령지
탄산토산	四味茱連丸, 黃連淸化丸
구토열격반위	四子調中湯
혈수	생도인
천수통치약	杏參散
폐창증	사물탕가도인가자청피죽력
혈울	六鬱湯加桃仁牧丹皮韭汁
식울	해울조위탕,生韭飮
비괴증치	당귀용회환가도인강황, 連蘿丸
적치치법	香稜丸
장담혈가석고증치	도인전,挑奴煎
혈적	도인승기탕
적치징가현벽비괴통치약	삼능화적환
穀脹	계시례산
혈창	도노환
학주발야발선분치	도인승기탕,마황황금탕
해학	五勞元,經效瘧丹
학질치법	도인적작약
截瘧法	人蔘截瘧飮
邪祟尸疰	挑奴元,殺鬼五邪丸
폐옹	葦葉湯
장옹복옹	도인승기탕
변옹	쌍해산
附骨疽	赤朮元
대풍창	補氣瀉榮湯
신장풍창	활혈구풍산

도인은 축혈증 구혈 토혈 해혈 각혈 血結成瘕 한입혈실 열입혈실 소변불통 등에서 혈분에 들어가 活血祛瘀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옹치법에서는 유옹은 肝經이 막힌 것이므로 도인이 肝經의 血分으로 들어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수산 혈산 기산 호산 퇴산 등의 疝症에서는 산증의 원인이 어혈 담음 식적이므로 도인이 어혈에 活血祛瘀 작용을 한다. 대변불통 에서는 도인이 대장경에 들어가 潤腸通便하고, 신허요통 좌섬요통 어혈요통 한요통 습요통 등에서도 活血祛瘀 작용을 하고, 역절풍에서도 역절풍의 원인이 어혈 담음 풍 한 습이므로 도인을 사용하였다. 상한혈증 상한흉복통은 하복부의 蓄血證이니 도인으로 活血祛瘀 하였으며, 瘻痔, 腸風臟毒, 肛門瘍痛, 熱有晝夜之分에서 야간발열, 중초열, 滯血發熱, 학질에서는 혈이 허하여 밤에 발하는 데에서는 열이 혈분에 들어간 것이니 도인을 사용하였다. 呑酸吐酸에서는 담화에 어혈을 낀 경우이므로 도인을 사용하였다. 血嗽肺脹症에도 어혈로 인한 경우 사용하였고, 비괴 적취 징가 현벽 혈울 식울 장담 혈가 석고 곡창 혈창 등에서도 어혈이 원인인 경우에 도인을 사용하여 活血祛瘀 하였다. 폐옹 장옹 복옹 변옹 부골저 대풍창 신장풍창 등에서는 도인으로 활혈소옹 하였다. 구

11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749
12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781
12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795
12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799
12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05
12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07
12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08
12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08
12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10
12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11
12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31
13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1883

사, 산후의 여러질환은 하복부의 어혈로 인하므로 도인으로 活血祛瘀 하였고, 기타 외부의 타박손상에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에서의 도인의 사용례는 전신적으로 活血祛瘀에 사용하였고, 肝經의 血分에 사용하였으며, 大腸經의 血分에도 사용하였다. 비괴, 적취, 곡창 등 국부의 有形瘀血과 축혈증, 산후 하복부의 여러질환 등 하복부의 어혈에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 홍화의 사용례

홍화는 진액문의 自汗에서는 調衛湯에서 사용하였고[131], 胞門의 월경을 고르게 하는 치료법에서는 七製香附丸에 사용하였고[132], 월경을 나오게 하는 치료법에서는 通經湯 瑞金散에 사용하였고[133], 처녀의 무월경에는 홍화당귀산에 사용하였고[134], 血結로 瘕가 되는 것에서는 歸朮破癥湯 사물조경탕 無極丸에 사용하였고[135], 붕루 치료법에서는 凉血地黃湯 시호조경탕 전생활혈탕에 사용하였다[136], 頭門의 열궐두통에서는 淸上瀉火湯에 사용하였고[137], 眼門의 天行赤目에서는 求苦湯에 사용하였고[138], 鼻門의 鼻齆에서는 청혈사물탕에 사용하였다[139], 목덜미가 뻣뻣한 것에서는 이진탕에 주금 강활 홍화를 기해서 사용하였고[140], 背痛에서는 蒼朮復煎湯에 사용하였고[141], 筋이 뒤틀리는 것에서는 사물탕에 황금 홍화 창출 남성을 가미해서 사용하였다[142], 전음문의 陰冷에서는 淸魂湯에서 사용하였고[143], 음낭이 濕하고 가려운 것에서는 椒粉散에서 사용하였고[144], 항문이 가렵고 아픈 것에서는 진교강활탕에 사용하였다[145], 風門의 중풍에는 중혈맥 중부 중장이 있다에서는 滋潤湯에 사용하였고[146], 구안와사에서는 淸陽湯에서 사용하였고[147], 역절풍의 치료법에서는 蒼朮復煎散 소풍활혈탕에서 사용하였고[148], 寒門의 열이 혈실로 들어간 것에서는 桂枝紅花湯에 사용하였고[149], 濕門의 寒濕에서는 蒼朮復煎散에 사용하였고[150], 燥病은 血을 길러야 한다에서는 사물탕에서 천궁을 빼고 생맥산을 합한 것에 천문동 천화분 황백 지모 홍화 감초를 가해 사용하였다[151], 내상문에서는 食傷에 소화시키는 약에는 木香化滯湯에 사용하였고[152], 술을 깨는 법에서는 益脾丸에 사용하였고[153], 노권상의 치료법에서는 보중익기탕에 황백3푼을 가해서 신수를 기르고 홍화2푼을 가해서 심으로 가는 혈을 기른다고 하였고[154], 嘈雜에서는 交泰丸에 사용하였다[155], 血啾에서는 인삼백합탕에 사용하였고[156], 痞塊의 증상과 치료법에서는 開懷散에 사용하였고[157], 장담 석가 혈고의 증상과 치료법에서는 石英散에 사용하였고[158], 창만을 두루 치료하는 약에서는 廣朮潰堅湯에 사용하였고[159], 학질을 낮에 발작하는 것과 밤에 발작하는 것으로 나누어 치료해야 한다에서는 시호궁귀탕에 사용하였고[160], 옹저문의 臂癰에서는 백지승마탕에서 사용하였고[161], 疔疽에서는 二活散에서 사용하였다[162], 天疱瘡에서는 복령탕에 사용되였고[163], 나력에서는 消腫湯 시호통경탕에 사용하였고[164], 매를 맞아 상한 것에는 化瘀散에 사용하였고[165], 임신을 시험하는 법에는 神方驗胎散에 사용하였고[166], 출산 후의 여러 가지 증상중에 血暈으로 답답하여 기절한 것을 치료할 때는 홍화를 술에 달여 먹었고[167], 산후의 心腹痛과 腰脇痛에서는 나쁜 피로 병이 생긴 것으로 보고 사물탕에 천궁과 당귀를 2배로 하고 귀전우현호색 홍화 몰약을 가해서 사용하였다[168], 소아문의 痘疹이 돋는 3일에서는 化毒湯에 자초 홍화 선퇴를 넣은 것으로 혈을 해독하고 또 保元湯에 자초 선퇴 홍화를 가해서 사용하였고[169], 두창이 부풀어오를 때의 예후에는 內托散에 사용하였고[170], 두창의 형색에 다른 예후에서는 흑색은 혈열에 속하니 사물탕에 황금 황련 홍화를 가해서 사용하였고[171], 두창의 허실에서는 혈이 부족하면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물탕에 자초 홍화를 가해서 사용하였고[172], 두창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눈 보호법에서는 黃栢膏에서 사용하였다.[173]

表 2. 『동의보감』에서 홍화가 사용된 예

홍화가 사용된 병증	홍화가 사용된 처방
자한	조위탕
조혈치법	칠제향부환
통혈치법	통경탕,瑞金散
실녀월경불행	홍화당귀산
혈결성가	귀출파징탕,사물조경탕,無極丸
붕루치법	양혈지황탕,시호조경탕, 전생활혈탕
열궐두통	청상사화탕
천행적목	구고탕
비사증	청혈사물탕

13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83
13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299
13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0
13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3
13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5
13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6
13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459
13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508
13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572
14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639
14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646
14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66
14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33
14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36
14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65
14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994
14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004
14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026
14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13
15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58
15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67
15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08
15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14
15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20
15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33
15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40
15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6
15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95
15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36
16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83
16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70
16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84
16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08
16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17
16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74
16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756
16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794
16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805
16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917
17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920
17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928
17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928
17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946

홍화가 사용된 병증	홍화가 사용된 처방
항강	이진탕가주금강활홍화
배통	蒼朮復煎湯
전근	사물탕가주금홍화창출남성
음냉	淸魂湯
음낭습양	槐粉散
항문양통	진범창출탕
風有中脈中腑中臟	滋潤湯
구안와사	청양탕
역절풍치법	蒼朮復煎散,소풍활혈탕
열입혈실	계지홍화탕
한습	蒼朮復煎散
燥宜養血	사물탕합생맥산가홍화
식상소도지제	木香化滯湯
醒酒令不醉	益脾丸
노권상치법	보중익기탕가황백홍화
조잡	交泰丸
혈수	인삼백합탕
비괴증치	開懷散
장담혈가석고증치	石英散
창만통치약	廣朮潰堅湯
瘡晝發夜發宣分治	시호궁귀탕
臂癰	백지승마탕
정저	二活散
천포창	복령탕
나력	消腫湯,시호통경탕
杖傷	化瘀散
驗胎法	神方驗胎散
혈훈	홍화
산후흉복협요통	사물탕가홍화현호색
出痘三朝	火毒湯加紫草紅花蟬退
出痘時吉凶證	保元湯加 紫草紅花
起脹時吉凶證	內托散
辨痘形色善惡	사물탕가황금황련홍화
辨痘虛實	사물탕가자초홍화
護眼	黃栢膏

홍화의 사용 처방을 보면 自汗에서는 調衛湯에서 心이 汗을 주관하므로 홍화의 심경 혈분으로 입하는 작용으로 사용하였고, 조혈통치 통혈치법 실녀월경불행 혈결성가 붕루치법 등에서는 홍화의 活血通經 작용을 이용하였다. 열궐두통 천행적목 鼻齆症 轉筋에서는 홍화가 肝經의 혈분으로 들어가 작용하게 하였으며, 음냉 음낭습양 항문양통도 肝經의 血行을 좋게하였다. 중풍의 中臟症, 구안와사 項强 背痛 寒濕에서는 홍화의 전신으로 활혈거어하는 작용을 활용했다. 歷節風에서는 역절풍의 원인이 어혈이므로 사용했고 燥宜養血에서는 活血하고 生新血하는 작용으로 사용하였다. 食傷消導之劑 勞倦傷治法 嘈囃에서는 홍화의 심경의 혈분으로 입하는 작용을 이용하였고, 醒酒令不醉에서는 홍화의 간경혈분으로 입하는 작용을 이용하였다. 어혈로 인한 血瘕 비괴 장담 혈가 석고 창만에서는 홍화의 祛瘀血작용을 이용하였다. 瘡晝發夜發宣分治에서는 혈이 허하여 밤에 발작할 때에 홍화의 祛瘀血 生新血하는 작용으로 사용하였고, 臂癰 천포창 정저 나력에서는 홍화로 活血消腫하였다. 산후의 흉복협요통, 혈훈은 하복부의 어혈이니 홍화로 어혈을 제거하였고, 험태법 杖傷에서도 홍화거어활혈 작용을 이용하였다. 出痘三朝 出痘時吉凶證 起脹時吉凶證 辨痘形色善惡 辨痘虛實 護眼法에서도 홍화의 祛瘀活血하는 작용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에서 홍화의 사용례는 전체적으로 活血通經 祛瘀止痛하는데 사용하였고, 월경불통, 轉筋, 음냉 등의 肝經의 혈분에 사용하였다. 또 노권상치법, 자한, 식상소도지제에서는 心經의 혈분에도 사용하였다. 조의양혈, 瘡疾에서는 홍화가 祛瘀血 生新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비옹, 정저 등에서는 活血消腫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중풍의 中臟症, 구안와사, 한습 등에서는 전신 어혈에 活血祛瘀하는데 사용하였다.

3) 도인과 홍화를 같이 사용한 례

도인 홍화를 같이 사용한 곳은 血病의 용약법에서 도인 홍화 소목 혈갈 목단피는 혈이 막혔을 때 쓴다고 했으며[174], 痰塊에서는 가미소위단에 사용하였고[175], 월경을 고르게 하는 치료법에서는 월경을 하려고 할 때 배가 아픈 것은 혈이 껄그러워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니 四物湯에 현호색 천련근 봉출 향부자 도인 홍화 환련을 가해서 사용하였고 또 淸熱調血湯 通經四物湯에도 사용하였고[176], 월경을 나오게 하는 치료법에서는 導經丸에서 사용하였고[177], 처녀의 무월경에서는 사물탕에 봉출 도인 목단피 현호색 홍화를 가해서 사용하였고 또 通經丸에도 사용하였고[178], 血枯로 월경이 나오지 않을 때는 四物湯에 도인 홍화를 가해서 사용했다[179], 眼門의 倒睫捲毛에는 명목세신탕에 사용하였고[180], 耳門의 귀가 아프다가 고름이 생긴 것에서는 동원서점자탕에서 사용하였고[181], 복문의 사혈복통에서는 四物湯에서 지황을 빼고 도인 대황 홍화를 가하거나 도인승기탕에 홍화 당귀 소목을 가하게나 消瘀飮에서 사용하였고[182], 요문의 어혈요통에서는 五積散에 마황을 배고 도인 홍화 목향 빈랑 회향을 넣거나 四物湯에 도인 소목 홍화를 넣어 사용하였고[183], 협문의 사혈협통에서는 小柴胡湯에 사물탕을 합한 것에 도인 유향 홍화 몰약을 가해 사용하였고[184], 皮門의 마목에서는 이진탕에 도인 홍화 창출 백출을 가하고 또 사물탕에 이진탕을 합하고 도인 홍화 백계자를 가해서 사용하였고 또 쌍합탕에서 사용하였고[185], 後陰의 항문이 가렵고 아픈 것에서는 秦艽當歸湯에서 사용하였고[186], 風門의 수족탄탄에서는 사물탕에 죽력 생강즙 도인 홍화 백개자를 가하거나 가감윤조탕에서 사용하였고[187], 歷節風의 치료법에서는 통풍은 대부분 血虛에 속한고 혈허한 뒤에 한열이 들어온 것이니 천궁 당귀를 많이 쓰고 도인 홍화 계지 위령선를 좌약으로 쓰거나 趁痛散에서 사용하였고[188], 燥門의 燥病은 혈을 길러야 한다에서는 生血潤膚飮에서 사용하였고[189], 내상문의 탄산토산에서는 아침에 감미로운 것을 먹으면 해질 무렵에 명치가 찌르

17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5
17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214
17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297
17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1
17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3
17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305
18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515
18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558
18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693
18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09
18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19
18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734
18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866
18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005
18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026
18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167

듯이 아프고 신물을 토하는 것은 혈이 허하고 화가 성하기 때문이니 四物湯에 진피 황금 황련 도인 홍화 마인 감초를 가해서 사용하였고[190], 嘔吐門의 구토 얼격 반위에는 대변을 통하게 해야 한다에서는 陰虛로 邪氣가 거슬러 올라 막혀서 구역질하고 딸꾹질하는 것은 부족하여 생긴 병이기에 이것은 대변이 통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지황 당귀 도인 홍화 감초를 넣고 대황 망초를 조금 넣어서 사용하였고[191], 積聚門의 血鬱에서 사지가 무력하나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소변이 찔금찔끔 나오고 대변이 붉고 할 때는 도인 홍화 청대 천궁 향부자를 사용하였고[192], 食鬱에서는 당귀활혈탕에서 사용하고[193], 痞塊의 증상과 치료법에서는 化塊丸 化痞丹에서 사용하였고[194], 적취의 치료법에서는 眞人化鐵湯에서 사용하였고[195], 창만문의 창만을 두루 치료하는 약에서는 반하후박탕에서 사용하였고[196], 消渴門의 3가지의 소갈에서는 화혈익기탕 생진감로탕에서 사용하였고[197], 소갈의 통치약에서는 淸神補氣湯에서 사용하였고[198], 해학문의 여러 가지 학질의 증상과 치료법에서는 鱉甲丸에서 사용하였고[199], 癰疽門의 장옹 복옹에서는 濕熱이 장 속에 쌓여서 안으로 옹이 되었을 때 맥이 규삽하면 四物湯에 도인 홍화 현호색 목향을 넣어서 사용하였고[200], 제상문에서는 金刃傷에서 복원활혈탕에서 사용하였고[201], 넘어지거나 맞거나 떨어지거나 깔려 상한 것에서는 通導散 當歸鬚散에서 사용하였고[202], 부인문의 자식을 구하는 법에서는 조경양혈원에서 사용하였고[203], 산후의 심복통과 요협통에서는 양혈좌간환에서 사용하였고[204], 유산에서는 화통탕에서 사용하였고[205], 兒枕痛에는 궁귀탕에 삼릉 봉출 현호색 목단피 도인 홍화를 가해서 사용하였고[206], 부인에 혈적이 있어 찌르듯이 아프면 도인 홍화 당귀두를 사용하였고[207], 소아문의 痘瘡의 여러 가지 증상에서 요통과 복통에서는 手捻散에서 사용하였다[208].

表 3. 『동의보감』에서 도인과 홍화를 같이 사용한 례

도인홍화 사용된 병증	도인홍화 사용된 처방
治血藥法	도인홍화소목혈갈목단피
痰塊	加味小胃湯
調血治法	사물탕가현호색고련근봉출향부자도인홍화황련, 통경사물탕,청열조혈탕
通血治法	導經丸
室女月經不行	사물탕가봉출도인목단피현호색홍화, 통경환
血枯	烏賊骨丸
外障	명목세신탕
耳痛盛膿耳	東垣鼠黏子湯
어혈복통	도인승기탕가당귀소목홍화, 消瘀飮
어혈요통	오적산거마황가도인홍화목향빈랑소회향,사물탕가도인홍화소목
어혈협통	사물탕거지향가도인홍화대황,사물탕가도인홍화유향몰약
麻木	이진탕가창출백출도인홍화부자,사물탕합이진탕가도인홍화백계자,쌍합탕
항문양통	진범당귀탕
수족탄탄	사물탕가도인홍화백계자,가감윤조탕
역절풍	趁痛散
燥宜養血	생혈윤부음
香醪吐酸	사물탕가진피황금황련도인홍화마인감초
구토열격반위	생지황당귀도인홍화
血鬱	도인홍화청대천궁향부자
食鬱	당귀활혈탕
비괴증치	化塊丸,化痞丹
적취치법	眞人化鐵湯
창만통치약	반하후박탕
소갈	화혈익기탕,생진감로탕
소갈통치약	淸神補氣湯
해학	별갑환
장옹복옹	사물탕가도인홍화현호색목향
金刃傷	복원활혈탕
攙撲墮落壓倒傷	通導散,당귀수산
구사	調經養血元,養血佐肝丸
반산	和痛湯
兒枕痛	궁기탕가삼능봉출목단피도인홍화현호색
소아요복통	手捻散

도인과 홍화를 같이 사용하여서 治血藥法, 調血治法, 通血治法, 室女월경불행, 血枯, 求嗣, 半産, 兒枕痛에서는 胞에서 祛瘀活血하였고, 眼門의 外障이나 耳痛性 膿耳에서는 宗脈이 모이는 눈과 귀에서 活血작용을 하였다. 어혈복통, 어혈요통, 어혈협통, 금인상, 攙撲墮落壓倒傷 등에는 도인과 홍화가 어혈을 푸는 작용을 하며, 痰塊 마목 수족탄탄 등에서는 活血祛瘀 하여서 경맥순환을 잘 되게 하였다. 또한 어혈로 인한 탄산토산 구토 얼격 반위 식울 혈울 비괴 적취 창만 등에도 活血祛瘀하는 작용을 한다. 燥宜養血, 消渴, 腸癰腹癰에서 맥이 규삽할 때, 해학, 항문양통에서는 祛瘀生新작용을 하였고, 역절풍에서도 祛瘀작용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에서는 도인과 홍화를 배합하여 胞에서 活血通經하는데 사용하였고, 어혈요통 어혈복통 血鬱 痞塊 脹滿 등에서는 活血祛瘀하는데 사용하였다. 또 眼과 耳 痲木 수족탄탄 등에서 活血祛瘀하여 경맥순환을 잘 시키는데 사용하였고, 消渴 燥宜養血 痎瘧 肛門瘍痛 등에서는 祛瘀生新하는데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4. 임상례

임상특강의 임상례에서는 便秘, 교통사고의 後遺症, 消渴, 수족탄탄, 피부의 燥症, 도첩권모, 한요통, 手指痲木이나 手足의 痲木에 도인과 홍화를 두루 사용하여서 活血하고 祛瘀生新하는 작용을 이용하였다. 특히 수족의 마목에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白芥子·竹瀝·薑汁을 많이 사용하여서 십이경맥의 운행, 즉 榮衛의 운행을 잘 되게 하였는데, 이는 도인 홍화의 活血通經 祛瘀新血하는 작용을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이 처방은 형상의학

19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230
19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15
19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4
19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5
19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86
19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392
19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35
19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46
19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50
199)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492
200)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568
201)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59
20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662
203)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751
204)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806
205)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768
206)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792
207)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829
208)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P. 1933

에서 子宮이 나쁠 때, 形(측)이 나쁠 때, 手足이 나쁠 때, 衛氣가 나쁠 때, 心臟이나 胃腸이 나쁠 때에 십이 경맥을 운행시키는 처방으로 사용하였다. 도인과 홍화는 각각 귀경이 心과 肝이므로 형상의학적으로 전면이 발달한 자, 눈과 입이 발달한 자, 혈과, 담체, 주류 등에 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인 홍화를 사용한 임상례중(21)에서 양명형이 5례, 정과가 3례 등이 있었지만 형상의학적 특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 론

『동의보감』에서의 도인의 사용례는 전신적으로 活血祛瘀에 사용하였는데, 肝經의 血分에 사용하였으며, 大腸經의 血分에도 사용하였다. 痞塊, 積聚, 穀脹 등 국부의 有形瘀血과 축혈증, 산후 하복부의 여러질환 등 하복부의 어혈에 많이 사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 홍화의 사용례는 전신적으로 活血通經 祛瘀止痛하는데 사용하였고, 月經不通, 轉筋, 陰冷 등의 肝經의 血分에 사용하였다. 勞倦傷治法, 自汗, 食傷消導之劑에서는 心經의 血分에도 사용하였다. 또한 燥宜養血, 瘡疾에서는 홍화가 祛瘀血 生新血하는데 사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도인과 홍화를 배합하여 胞에서 活血通經하는데 사용하였고, 어혈요통 어혈복통 血鬱 痞塊 脹滿 등에서는 活血祛瘀하는데 사용하였다. 또 眼과 耳 痲木 수족탄탄 등에서 活血祛瘀하여 경맥순환을 잘 시키는데

表 4. 임상특강의 임상례

番號	性別 및 年齡	形色	脈	症狀	治法	考察
1	女, 30	面黃	79/79	出產	理脾湯加 桃仁 紅花 大腹皮 車前子 각1돈	潤腸通便
2	女, 37	인당이 울		교통사고로 우울하고 腰痛 下肢痺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白芥子·竹瀝·薑汁	우울증을 풀기위한 開結舒經湯 쓰기전 瘀血로인한 痲木으로 二陳四物加味方
3	女,18	입이삐뚤다. 안경 魚際에 살이없는瘦人	68/70	밥을 급하게 먹는데 살이 빠진다. 口舌生瘡	生津甘露飮	도인과 홍화가 같이 들어가 活血하고 生新血
4	남,32	眼鏡을 썼으며 눈이 陷沒하고 눈 주위가 어둡다.	70/72	눈이 침침, 頭不淸 뒷목이 뻐근, 허리가 아프다. 구안와사은적있음. 피로증	四物湯 加 桃仁 紅花 白芥子 各 一錢, 竹瀝 薑汁	도인과 홍화가 들어가서 活血通脈
5	女,30	氣科,瘦人,面白	74/70	뱃속이불편, 가슴두근거림 뒷쪽갈라짐	七氣湯 生血潤膚飮	生血潤膚飮은 燥症에 사용하고,도인 홍화가 活血 生新血한다
6	男, 53	양명형	78/76	倒睫拳毛	明目細辛湯 十六貼, 瀉肝散 四貼	明目細辛湯의 도인과 홍화는 간경의 혈분으로 들어가 活血 去瘀生新작용
7	男, 52	精科로 생겼다. 얼굴이 검다.	82/84	목덜미 견갑골주위 통증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白芥子·竹瀝·薑汁 (雙合湯)	죽이나쁜 것으로,二陳湯 合 四物湯에 도인과 홍화가 가미되어 活血去瘀 작용을 하여 경맥의 순환
8	女, 31. 未婚	얼굴이 희다	84/82	결핵앓은적 있다. 手足痲木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	結核은 陰이 虛해서 오는 것으로 二陳湯 合 四物湯을 써서 補陰
9	女, 52	몸이 뚱뚱하고 얼굴이검다	62/65	手足痲木, 消化不利	二陳湯 合 四君子湯 加 桃仁·紅花·白芥子·竹瀝·薑汁	二陳湯 合 四君子湯에 도인 홍화를 가하여 活血通脈한다.
10	女, 62	面白,陽明,肥,頭大	56/56	고혈압, 어지러움, 左側痲木	四物湯 合 二陳湯 加 白芥子·桃仁·紅花·竹瀝·薑汁.	癱瘓의 경우로 보고 左側이 不便할 때 쓰는 四物湯 合 二陳湯 加 白芥子·桃仁·紅花·竹瀝·薑汁
11	女, 40	精科, 눈힘몰, 눈담음기(인도네시아인)	60/60	자궁제거, 허리 무릎이 아프다.	五積散 加 吳茱萸 桃仁 紅花	한요통에 五積散 加 吳茱萸 桃仁 紅花를 쓰는데 도인과 홍화가 가해져서 활혈거어하고 온통작용
12	男, 29	입위주, 코들림, 膚靑.	76/86	1년전 교통사고, 右手足痲木	犀角地黃湯 當歸鬚散을 교대로 복용한다	腦까지 津液이 못 오르는 것이다. 이유는 腦에 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大便이 검다는 것은 瘀血이 있다는 것이다. 목 이상의 瘀血에는 犀角地黃湯, 목 이하의 瘀血에는 當歸鬚散을 쓴다. 당귀수산에 도인 홍화
13	女, 54	눈밑 담음기	50/48	四肢節痛, 小便淋數(膀胱炎이 심하다.), 자궁외 임신수술경력	二陳湯 加 白朮 蒼朮 桃仁 紅花 各一錢	胃의 死血로 桃仁 紅花 가미된처방
14	男, 38	양명형	60/58	외상으로 뇌수술,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를 지르고 下肢痲木	當歸鬚散 加 大黃 3錢	대소변을 정상으로 돌리면 浮沈升降이 정상으로 돌아옴
15	女, 33	눈썹이 찐함		잠자기전 한열, 차멀미, 가슴답답 손발저림 허리,등통증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	눈썹이 진한것은 혈기성하여 12경맥이 좋지않아서 손발이 저림.
16	女, 39	정과 얼굴이 노랗다.	64/66	손발저리고, 아랫배팽만 차다. 난소물혹, 항문이 빠지는것 같다.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薑汁	12경맥은 배꼽에 붙어있고 눈에 붙어있다. 12경맥을 운행시킨다.
17	男, 55	鼻孔이 드러남, 배가나왔음.	60/62	신경이 예민, 우측다리아프고 우측 견갑골에 통증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 各 1錢, 白芥子 5分, 竹瀝·薑汁	비공이 드러난것은 通利作用이 안되는것, 배가 나온것은 12경맥이 나쁜것
18	女, 43	코가 강함, 곰보였으나 성형수술	66/62	손이 저림	二陳湯 加 蒼朮·白朮·桃仁·紅花 各 1錢, 附子 3分	코가 강한것은 기실, 痲木은 經血運行이 안되는것
19	男, 49	양명형, 코가크고 입술이 얇다. 얼굴 양쪽가장자리 때	66/66	감기몸살을 자주함. 습관성 下血, 肩臂痛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 各1錢, 白芥子3分, 竹瀝·薑汁 冲和補氣湯, 紫金錠	먼저 經血을 運行시켜주고 後에 形盛氣衰 하니까 補氣 시키는 藥을 쓰는게 原則
20	男, 45		88/92	고혈압, 간염, 小便數, 右側脇痛, 배가그득하고 차고 아프다.	二陳湯 加 蒼朮·白朮·桃仁·紅花 各 1錢, 附子 3分	胃中 濕痰과 死血로 因하여 活血去痰 치료
21	男, 40	陽明形, 얼굴이 검다.	64/62	疲勞, 腰痛, 眩暈, 手足이 저리다. 숨이 차다.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紅花·白芥子·竹瀝·薑汁	心臟이나 胃腸이 나쁜것은 十二經脈이 나쁜 것이다.

사용하였고, 消渴 燥宜養血 痰瘡 肛門瘍痛 등에서는 祛瘀生新하는데 사용하였다. 임상특강에서 도인과 홍화를 같이 사용한 경우는 교통사고의 후유증, 便秘, 消渴, 피부의 燥症, 수족탄탄, 手指나 手足의 痲木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여 活血祛瘀 祛瘀生新하였는데, 특히 마목에 二陳湯 合 四物湯에 도인 홍화를 加한 처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 처방은 형상의학에서 子宮이 나쁠 때, 形(축)이 나쁠 때, 手足이 나쁠 때, 衛氣가 나쁠 때, 心臟이나 胃腸이 나쁠 때에 십이 경맥을 운행시키는 처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임상특강의 도인 홍화 사용례에서 형상적 특이성을 찾기 어려웠다.

참고문헌

1. 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용림사, 2004.
2.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 출판사, 2005.
3. 김창민 외 편찬. 중약대사전. 서울, 정담.
4. 묘명삼, 왕지민. 대약의 화학 약리와 임상. 북경, 군사의학과학출판사, 2001.
5.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1984.
6. 상지대 한의과대학 4기. 국역 혈증론. 서울, 일중사, 1997.
7. 鄒澍. 본경소증. 서울, 대서의학사, 2001.
8. 강병수 외. 임상배합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4.
9. 김정범. 금궤요략변석(상). 서울, 한의문화사, 2002.
10. 배병칠.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2005.
11. 精校黃帝內經素問 洪元植.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12. 精校黃帝內經靈樞 洪元植.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1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II III IV V VI. 서울, 芝山出版社.